

오에 겐자부로의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론*

- 핵시대의 상상력의 출발점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회구 -

소명선**
smskk0604@jejun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세계종교’와 ‘새로운 사람’ |
| 2. 근미래의 세계구도 | 5. 나오며 |
| 3.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의 의미 | |

主語語: 치료탑(the tower of treatment), 치료탑 흑성(the planet of treatment tower), 히로시마(Hiroshima), 세계종교(world religions), 새로운 사람(new man)

1. 들어가며

1963년 3월호 『중앙공론(中央公論)』지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1935~)는 「나 자신 속의 전쟁(ぼく自身のなかの戦争)」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 글은 파리에서 국제정치론을 연구하고 있던 친구 다나카 료(田中良)가 미래의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자살해버린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속에서 오에는 스스로를 SF 애독자라 밝히며,¹⁾ 당시의 SF소설이 그려내는 미래의 전쟁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미지에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신은 핵무기에 의해 멸망으로 끝나는 전쟁과는 다른 미래의 전쟁 SF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독하고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화성으로부터의 공격을 계기로 연대감과 “광대한 공생감”을 회복해간다는 구상의 이 소설이 실제 완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도 덧붙이고 있다.²⁾ 그런데 1990년대 초두,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大江健三郎(1962)「ぼく自身のなかの戦争」『厳肅な綱渡り』文藝春秋, p.128

2) 상계서, pp.130-131

오에는 『치료탑(治療塔)』(岩波書店, 1990.05)과 속편 『치료탑 혹성(治療塔惑星)』(岩波書店, 1991.11)을 발표했다. 물론 1960년대의 구상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21세기 전반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핵전쟁과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된 지구를 단념하고, 우주로 식민지 개척에 나선 인류의 행보를 여성 화자의 시점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에 대한 해석을 기저로 하면서 ‘새로운 지구’를 향한 ‘선택받은 자’들의 출발과 귀환, ‘선택받은 자’와의 사랑과 출산, 새로운 우주계획에 참여한 남편의 부재중의 육아 과정 등이 ‘낙오자’로서 지구에서의 일상을 영위하는 화자의 시선으로 서술되고 있다. 소설 표지를 ‘근미래 SF’로 장식하고 있는 『치료탑』에 대해 SF가 아니라는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반응을 수용하면서, 오에는 자신의 작품을 “근미래 가정소설 같은 것”³⁾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에는 『핀치런너 조서(ピンチランナー調書)』(1976)를 통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폭 사고를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려내고 있고, 『공중회전(宙返り)』(1999)에서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려는 종교집단을 등장시킨 바 있다. 2001년 3월 11일, 동북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국지적 재해가 아닌, 핵의 ‘평화 이용’에 대해 더 이상 낙관적일 수 없는, 현실과 핵문제를 둘러싼 인류 공통의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은 그야말로 “미래의 경험”⁴⁾모델이자, “예계로서의 근미래 SF”⁵⁾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작품은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발표 당시는 순문학을 추구하던 오에가 SF라는 새로운 장르의 소설을 발표한 점에

3) 大江健三郎(1992a)『人生の習慣』岩波書店, p.223

4)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미래의 경험-오에 겐자부로『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을 둘러싸고(未来の経験-大江健三郎『治療塔』と『治療塔惑星』)」(『文学』3(2)1992.春)에서, 오에가 『소설의 방법(小説の方法)』(1978) 등에서 소설의 중심 과제로 제시한 ‘미래의 경험 모델’에 착목하여, 인류의 역사로 축적되어 온 과거의 사실을 통해 구축한 ‘미래의 경험’이 현재의 체험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오에의 문학적 전략(‘문학표현의 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5)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고단샤(講談社)에서 오에의 소설 작품을 전집으로 발행하면서 『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은 환타지 소설 『200년의 아이(二百年の子供)』와 함께 ‘시공을 초월한 SF적 시도’라는 테마로 제10권에 수록되었다. 제10권의 해설 「예계로서의 근미래 SF(予戒としての近未来SF)」에서 오자키 마리코(尾崎真理子)는 소설이 후쿠시마의 원전사고에 대한 ‘예계’일뿐 아니라, 소설 속에는 다양한 형태로 ‘예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의 폭발사고는 “우주의지로부터의 경고”였다는 다카시 백부의 말은 ‘새로운 지구’로의 식민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귀환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 1912년에 발생한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이미 1898년에 발표된 모건 로버슨(Morgan Robertson)의 소설에서 타이탄호의 침몰 사고로 예고되고 있었던 것처럼, 토성에 통신기지를 건설해 ‘치료탑’의 정보를 송신하고자 한 사쿠(朔) 일행의 위성 타이탄 계획의 말로를 예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덧붙여 두 작품을 “지구의 비판적인 미래에 대한 예계”(p.248)로 고찰한 송인선의 「<치료탑>이라는 예계」(『일본문화학보』(52) 2012.02)는 오자키와 유사한 관점의 논고라 할 수 있다.

주목하여 기존의 SF소설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거나, SF의 계보에서 작품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⁶⁾ 그러나 오에 자신 1960년대부터 SF 애독자임을 밝히고 있고, 이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영향을 많이 받은 SF작가와 애독하는 작가와 작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⁷⁾ 에노모토 마사키(榎本正樹)는 주류문학에서 SF라는 비주류문학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여, 두 작품에 대해 당시 순문학 작가들이 SF적 수법을 도입하거나, 포스트모던적 경향이 강했던 일본문학 전반에 나타난 현상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⁸⁾ 고바야시 다카요시(小林孝吉)⁹⁾는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의 생태학 이론을 도입하여 환경, 사회적 관계, 인간적 주관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두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치료탑 흑성』의 문고판 해설을 쓴 고타니 마리(小谷真理)의 경우, 여성 화자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중심의 “문명이 내포하는

6) 예를 들어 가사이 기요시(笠井潔)는 평론집 『종언의 끝(終焉の終り)』(福武書店, 1992.03)에서 1950년에서 1960년대에 유행한 문명비판 SF를 1990년대적 지평에서 부활시켰다는 의미에서 반시대적인 SF소설이자, 우주철학적인 소설로 평가하고 있는데, 오에의 SF소설은 특히 아서 클라크(Arthur C. Clarke)의 『유년기의 끝(Childhood's End)』(1953)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는 「셸터에서 치유의 담으로—오에 겐자부로의 새로운 밝음(シェルターから癒しの搭へ—大江健三郎の新しい明るさ)」(『文学界』1990.10)에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A Space Odyssey)』(1968)의 세계와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에노모토 마사키(榎本正樹)는 『『치료탑』 『치료탑 흑성』—경계선상의 문학(『治療塔』『治療塔惑星』—境界線上の文学)』(『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1997.02)에서 『유년기의 끝』 외에 스프루가즈키 형제(Братья Стругацкие)의 『노변의 피크닉(Пикник на обочине)』(1972)의 세계와의 유사성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의 경우, “SF이야기로서의 줄거리 구성과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단순화되어, 말하자면 지나치게 희화화”(『今月の文芸書』『文学界』1992.03, p.283)되어 있고, 소설 설정이 너무도 가까운 미래다 보니 거의 현재와 겹쳐지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문기에도 지나치게 도식화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는 오에와의 대담 「현대문학으로의 통로(現代文学への通路)」(『新潮』1990.09)에서 SF작가 모리 시타 가쓰히토(森下一仁)의 지적에 동조하면서, 본격적인 SF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 우주선단이 지구와 ‘새로운 지구’를 10년 사이에 왕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100만 명의 ‘선택받은 자’가 지구를 떠났을 뿐인데 잔류자들이 대혼란에 빠질 정도의 엘리트사회로 설정된 점 등을 『치료탑』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pp.125-126)

7) 예를 들어 오에는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와의 대담 「현대문학으로의 통로(現代文学への通路)」(『新潮』1990.09)에서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Karel Capek)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고(p.129), 폴란드의 SF작가 스타니스와프 렘(Stanislaw Herman Lem)과 러시아의 SF작가 스프루가즈키 형제(Братья Стругацкие)의 애독자임을 밝히고 있는데(p.131), 이러한 언급은 『히로시마의 ‘생명 나무’』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소설뿐 아니라 영화화된 작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8) 에노모토는 『『치료탑』 『치료탑 흑성』—경계선상의 문학(『治療塔』『治療塔惑星』—境界線上の文学)』(『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1997.02)에서 먼저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이 아서 클라크부터 당시의 애니메이션의 세계(예를 들면 『우주전함 야마토』 『미래소년 코난』 『기동전사 건담』)까지 폭넓은 콘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문학 전체를 뒤덮은 장르적 변환의 운동에 민감하게 호응한 것처럼도 받아들여지는 오에의 슬립 스트림으로의 이동은, SF와 메인 스트림의 융합, 이라기보다 그 경계영역으로 자신의 소설표현을 이문화해 가는 연속적인 운동을 의미”(p.143)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9) 小林孝吉(1992)「宇宙意志の解説とエコロジー—大江健三郎『治療塔』『治療塔惑星』」『新日本文学』47(7), pp.102-111

타자성, 소외성, 자신의 내부에 구조화된 위화감의 정체¹⁰⁾를 탐구해 가는 사색소설로 해석하고 있다.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은 ‘근미래 SF’로 분류되지만, 『핀치런너 조서』(1976)나 『동시대 게임(同時代ゲーム)』(1979)과 같은 작품에도 이미 SF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¹¹⁾, 소설의 무대가 우주공간으로 확대되어 있을 뿐, 기존의 작품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에이츠의 시가 작품 해석의 주요한 매개가 되고 있고, 상반된 성격의 2인조라는 캐릭터 조형과 80대의 노인이 된 히카리(ヒカリ)가 등장하고 있는 등 오에의 소설에서 친숙한 요소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드 SF와는 달리 오에의 소설은 핵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서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때문에 논자는 기존의 SF와의 영향관계 및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은 본격적인 비교분석 논고가 아닌 이상 큰 의미는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SF라는 장르적 특수성은 유보하기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치료탑’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미 소설 속에서 명확한 암시를 주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치료탑 흑성’의 의미와 ‘세계종교’와 ‘새로운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오에가 두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설 속에서 근미래로 설정된 세계의 구도, 원폭 돔과 증첩되는 ‘치료탑’을 통한 ‘치료탑 흑성’의 의미, 그리고 ‘세계종교’와 핵시대의 ‘새로운 사람’에 부여된 의미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1전반의 미래세계에 대한 오에의 상상력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핵시대의 일본과 일본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미래의 세계구도

『치료탑』은 1989년 7월호(20호)부터 1990년 3월호(24호)에 걸쳐 『헤르메스(へるめす)』지에 「재회, 혹은 마지막 작품(再開 あるいはラスト・ピース)」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고, 속편인 『치료탑 흑성』은 동일한 잡지의 1991년 1월호부터 9월호에 연재된 후 각각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소설의 화자는 리쓰코(リツコ)라는 여성으로 속편에서는 편지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

10) 小谷真理(2008)「解説」『治療搭惑星』講談社文芸文庫, p.306

11) 『핀치런너 조서』의 경우, 모리(森)의 아버지가 38살에서 18살로, 모리는 8살에서 28살로 각각 20살씩 나이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동시대게임』에서는 ‘파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마을=국가=소우주의 역사와 신화를 다루고 있어 SF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다.¹²⁾ 전체주의 국가의 미래의 모습을 그린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1949)가 35년 후의 근미래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도 소설 집필 시기로부터 약 50여 년 후인 21세기 전반이라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로 설정되어 있다. 『치료탑』이 그려낸 미래는 세계 각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국지전이 전개되었고, 연이어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규명되지 않은 새로운 암의 발생과 에이즈의 확산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지구라는 흑성에서의 미래를 단념하고, ‘새로운 지구’를 개척하기 위해 우주로 향했고, 소설은 ‘새로운 지구’로 떠난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100만 명의 ‘선택받은 자’가 10년 만에 다시금 옛 지구로 되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본인 우주선단의 총괄 책임자는 기다 다카시(木田隆)로, 그의 아들 사쿠(朔)도 로켓 조종사로 ‘선택받은 자’의 한 명이다. 다카시의 형 시게루(繁)는 과학자로 우주항공을 위한 스타십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연구소의 소장이었으나, ‘새로운 지구’로의 대출발이 현실화되고 전세계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자 연구소를 나와 지구에 남는 길을 택한다. 시게루는 대출발 후의 혼란기에 지구에 버려진 ‘낙오자’들의 삶과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했으나, 6년 전 암이 발견된 이후 회복과 전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주선단이 귀환하는 해 봄에 사망했다. 화자인 ‘나’는 중동의 합변회사에 부임 중이던 부모가 그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전에서 사망하고 그 후 회사의 배려로 스위스의 기숙제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출발 후의 사회 혼란 속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먼 친척인 할머니가 일본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시게루 백부의 경제력에 의지하며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새로운 지구’로 향했던 자들이 10년 만에 귀환하면서 ‘나’의 인생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온다. ‘새로운 지구’에서 ‘치료탑’을 경험하고 귀환한 자들은 오염된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가 개조되어 있었다.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사쿠와 ‘나’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귀환자와 잔류자 사이의 금혼 규율을 깨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치료탑』이다.

이어지는 『치료탑 흑성』에서는 사쿠와의 사이에 아들 타이(タイ)가 태어나고, 사쿠는 새로운 우주계획, 즉 토성의 위성 에 대규모 통신기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지구’에 재진입하여 ‘치료탑’을 지구에 건설하기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임무를 맡고 지구를 떠난다. ‘치료탑’을 경험한 사쿠의 피를 이은 타이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아이로 성장했고, 스타십공사에서 제공

12) 오에의 전 작품 중 여성 화자에 의해 서술되는 작품은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 외에 『조용한 생활(静かな生活)』(1990)과 3부작 『불타오르는 푸른 나무(燃えあがる緑の木)』(1993~1995)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조용한 생활』은 여성 화자라는 공통점뿐 아니라, 소설의 발표 시기가 『치료탑』의 집필 시기와 중첩되고 있다.

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새로운 지구’에는 ‘치료탑’에 의한 육체 개조를 거부하고 지구로의 귀환도 거부한, 소위 ‘반란군’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만의 거주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치료탑’에서의 처치를 목적으로 지구에서 온 불법 이주자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통신기지 건설을 완료한 사쿠 일행이 ‘새로운 지구’에서 ‘치료탑’ 조사에 착수하고 있을 때, 지구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집단이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아마존세계대전’이 발생한다. 국제연합과 스타십공사의 연합군에 의해 ‘아마존세계대전’은 진압되었으나, ‘새로운 지구’에서는 ‘치료탑’ 조사를 방해하는 신이주자들과의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었고, 지구에서 가져온 소형 핵무기의 폭발로 히로시마의 피폭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건 후 사쿠는 인간을 통신기관처럼 뉴런을 이용해 우주의 지성체가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처치에 들어간다. 사쿠가 ‘우주공동감각’으로 수신한 의미불명의 메시지는 ‘새로운 지구’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즉 타이틀 비롯한 30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우주소년십자군’에게 전송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이들의 인체실험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카시와 하나와(塙)는 시위대가 던진 수류탄으로 사망한다. 한편, ‘치료탑’에 관한 조사 내용과 자료를 지구로 송신한 후 위성 타이탄의 통신시설뿐 아니라 사쿠 일행의 우주선단 자체로부터도 소식이 두절된다. 사쿠가 ‘우주소년십자군’에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건축가로 성장한 타이의 행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치료탑』과 속편 『치료탑 혹성』이 그려내는 미래 세계의 현저한 특징은 대립과 분열이다. 이러한 양상은 우선 황폐해진 옛 지구와 ‘새로운 지구’, ‘선택받은 자’와 잔류자 혹은 ‘낙오자’라는 소설의 전체 구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지구’로 떠난 ‘선택받은 자’들 사이에도 ‘치료탑’의 처치를 적극적으로 받고 귀환한 자와 처치는 물론 지구로의 귀환도 거부한 ‘반란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물 조형에 있어서도 지향하는 바가 정반대인 형제, 즉 오염되고 병든 지구를 버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인솔해서 ‘새로운 지구’로 향하는 동생 다카시와 지구에 버려진 ‘낙오자’들 측에서 그들 나름의 문화와 문명을 존속시키며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는 형 시게루와 같은 식으로 대조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우주적 의지에 대한 해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회의적인 시게루는 1986년 NASA가 케이프커내버럴 기지에서 발사한 스페이스셔틀 챌린저호의 추락 사고를 “인적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인 우주의지로 부터의 경고”(p.18)¹³⁾로 받아들인다. ‘새로운 지구’로의 대출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잔류자들

13) 『治療塔』과 『治療塔惑星』으로부터의 인용은 두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大江健三郎全小説 10』(講談社, 2019.06)에 의하며, 이하 논지 전개 과정에서 인용하는 경우 페이지 수만 표기한다. 아울러 한국어

과 함께 지구 재건운동에 전력했으며, 그가 지향한 재건운동은 노동으로 인격을 풍부하게 만드는 “브리콜라주(bricolage)” 정신을 강조했고, “원시적인 유용성”(p.16)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인류가 핵전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지구’로 향한 것은, 지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우주의지”에 대한 역행으로 여기고, 대출발의 실패를 예견한 인물이다. 이와는 반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인류의 미래를 걸고 있는 다카시는 우주선단의 ‘새로운 지구’에서의 경험은 “우주의 근본을 이루는 ‘신’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그곳에 건조되어 있는 ‘치료탑’은 “우주의 탄생 이래, ‘신’이 만들어낸 지적 생물”, 즉 신이 만들어낸 “마지막 작품(last piece)”(p.130)인 인류에 대해 최후의 수정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신’의 마지막 수정을 받은 인간으로서 ‘치료탑’의 비밀을 규명하고 인간의 힘으로 지구에도 ‘치료탑’을 건조해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소설이 집필되던 시기는 동독과 서독을 가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에도 개혁과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던 시기였으며, 『치료탑 흑성』 연재가 끝나고 한 달 후에는 구소련의 해체가 현실화되었다. 즉,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전 세계가 새로운 기류를 맞이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약 반세기 후의 미래로 설정된 두 작품에서 오에는 여전히 대립구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새로운 지구’를 향해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환할 때에도 세계 각국의 우주선단은 동서 양진영으로 나뉘어 각각의 국제기구 하에 계열화되어 있었고, 미국 텍사스의 기지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기지로 이분화되어 착륙했다. ‘선택받은 자’들이 귀환하고 난 후에는 “새롭게 미소 양진영이 대결을 격화시키는 기세”(p.82)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은 “동서 냉전의 미국 측 전진기지”(p.96)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의 재편성이 예고되고 있고, 속편에서 대출발 이후의 새로운 우주계획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착수한다.¹⁴⁾

전세기 말은 “거대 핵무기로 인한 대치의 종언”(p.197) 보도가 매스컴을 장악했고, 동서 양진영에서 핵탄두를 제거하는 의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주선단이 지구로 복귀한 후에는 핵무기의 위협이 다시금 인류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었다. 금세기 초반에는 미국 중서부에서 세력을 확장한 원리주의자들이 지하 핵 무기고를 약탈하려던 시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아마존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것은 ‘치료탑’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자 아마존 오지로 들어간 과학자들과 알래스카의 미군기지에서 수포를 반출한 군인 집단,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이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며 번역한 글 중 굵은 글씨는 원문의 방점을 대신하고 있다.

- 14)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송인선(2012:225)은 「<치료탑>이라는 예제」에서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 구조와 이에 편성하는 일본의 팽창주의로 해석하고 있고, 『치료탑 흑성』이 연재되던 시기에 발생한 걸프전쟁을 구체적인 예로 미국 주도의 전쟁에 경제적 지원과 함께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견한 일본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합류해서 ‘지구 산소 1/4공급기구’라는 독립국을 표방하며, 서방 진영의 선진국 전체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다. 독립국의 지도자는 페루의 일본계 과학자 아나토리오 기쿠치(アナトリオ・キクチ)로, 그는 선진 서방국가가 빈곤한 국가에 각국의 국민총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를 분배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소지한 수폭에 점화해서 전 세계의 산소의 4분의 1을 잃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종말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신생 독립국은 초강대국이 핵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폭을 무기로 초강대국을 견제하면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의 재분배였다. 옛 지구는 대출발의 여파로 지구 전역이 만성적 식량부족에 허덕였고, 특히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소련권에서는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속출했으며, 핵 방사능 오염은 이러한 식량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기술은 대단히 흥미롭다. 우주선단이 출발하기 전, 한반도에는 조선통일국가기구가 설립되어 있었지만, 대출발을 전후로 그 효력을 잃고 20세기 말의 상태, 즉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핵폭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자, 대출발, 즉 대탈출이라는 공통의 목표 때에만 협력하고, 귀환 후에는 대출발 전과 마찬가지로 분열 상태로 되돌아온 것으로 그리고 있다.

오에는 인간의 사회조직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경향, 즉 사회적인 피라미드가 없었던 수렵사회(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와 원숭이의 사회(강력한 피라미드가 지배적인 사회)라는 전혀 다른 경향이 혼재되어 있고, 이것은 “유전자적으로 우리를 결정짓고”¹⁵⁾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근미래의 사회구도에도 나타나고 있다. 두 작품을 통해 오에가 그려낸 반세기 후의 미래는 집필 당시와 비교해 지구환경이 더욱 악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오래된 지구와 ‘새로운 지구’에서는 여전히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동서 양진영으로 분열된 상태는 더욱 격심한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다. 핵 폐절이 실현되지 않는 한, 핵무기의 개발 및 보유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정치 행태가 근미래에도 지속될 것이고, 동서 양진영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견이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 오에가 예견한 미래는 희망적인 비전이 아니라 더욱 악화된 모습이었으며, 이것은 21세기의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 현재의 세계구도를 정확히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大江健三郎(1992b)『ヒロシマの「生命の木」』NHK出版, p.139

3.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의 의미

옛 지구에서 ‘아마존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나’는 ‘지구 산소 1/4공급기구’의 지도자 기쿠치의 연설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서방 진영의 선진국들을 향한 기쿠치의 선전포고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구의 문명도 비문명도, 문화도 야생도, 정신도 육체도, 성실함도 게으름도, 어른의 경험도 어린아이의 무구함도,모든 것이 20세기 중엽,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경계로 종말을 향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략)세계가 종말을 향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는 이미 몇 가지나 나타나 있다. ‘핵겨울’의 경고——피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겨울로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영구적인 겨울로서의——, 오존층의 파괴,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증거, 인류 절반의 백 년간의 꿈을 드러내 보인 사회주의체제의 파산이라는 증거. 그것은 자본주의체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을 가능성의 절반의 붕괴였다. 거듭된 핵전쟁의 지역적인 발발로 전개된 걸프전쟁이라는 증거.(p.215)

‘핵겨울’의 경고,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걸프전쟁을 지구가 종말로 치닫고 있는 증거로 들고 있는 기쿠치는 그 마지막 증거로 지구에서의 문명의 재건을 단념하고 ‘새로운 지구’로 떠난 대출발을 들고 있다. 그런데 상기의 인용문에서 기쿠치는 왜 인류가 종말의 길로 치닫기 시작한 기점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인간에 대해 핵무기가 사용된 전쟁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구 규모의 우주 식민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오에가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새로운 지구’에서 귀환한 사쿠는 스타십공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자 하는 지구 재건사업에 의구심을 갖고, 스타십공사에 반목하는 세력들에 의해 진행된 집회에 참석한다. 이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지자 ‘나’와 함께 기타가루이자와(北軽井沢)에 위치한 농장에서 기거하게 된다. 그곳에서 사쿠는 코뮌을 지향하고 있는 농장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구’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스타십 공사가 공표를 금하고 있는 ‘치료탑’에 관해서이다. ‘치료탑’은 아키타(秋田)의 가마쿠라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희귀한 금속을 사용해 축적된 고도의 과학적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다. 건조물 정면에 새겨진 사과나무 모양의 부조로 인해 ‘생명의 나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치료탑’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적 조건을 개조하고, 파괴된 육체와 질병을 낮게 하며 젊음을 유지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치료탑’의 의미는 속편인 『치료탑

혹성』에서 명확하게 제시된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지구를 떠나게 된 사쿠가 ‘나’와의 여행을 계획했고, ‘나’가 선택한 여행지는 “전세기부터 금세기에 걸쳐 경련적으로 반복된 핵의 비극의 최초의 장소, 핵공격의 제1회 표적이 된 도시”(p.145) 히로시마였다.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본 히로시마는 변모해 있었다. 대출발 후의 혼란기에 평화공원을 민중에게 돌려달라는 운동이 일본 각지에서 일어났고, 평화공원을 점거한 자들은 시와 국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나’의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는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 곳에서 그날 일순간 증발해버린 사람들한테서, 자신들은 이 땅을 유증(遺贈) 받았다, 는 것이 성명의 핵심입니다. 이 지구에 지금은 ‘낙오자’로 남겨진 자들은, 거둬되는 핵폭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머지않아 쓰러져 죽을 자들이다. 히로시마에서 죽어간 사람의 가혹한 운명을, 보다 천천히 알아갈 자들로서, 자신들에게는 히로시마에서 죽어간 자들로부터 정당하게 유증 받을 권리가 있다. 과거 이 광장은 《편히 잠드소서, 실수는 거듭하지 않을 테니》라는 맹세의 말을 버팀목으로 해서,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인류의 의지를 표명한 장소였다. 맹세는 거듭 휴지 찌가리 취급을 당해 핵전쟁은 일어나고, 원자력발전소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이미 20년 동안, 히로시마에서 국제적인 평화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지금 평화공원에는 피폭사망자의 충족되지 않은 원념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은 이 능멸당한 땅을 되찾은 것이다..... (pp.148-149)

여기서 ‘원폭 난민’들의 주장은 히로시마에서 피폭으로 인해 죽어간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인류의 의지”는, 이후 전개되는 핵 상황으로 절망과 원념을 안겨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1954년 3월에는 남태평양 비키니섬 주변 해역에서 어업 중이던 일본 어선이 미국의 수폭실험으로 피폭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1955년에는 히로시마에서 원수폭을 금지하고 피폭자를 구원하며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장소를 달리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상기의 인용에서 “20년 동안, 히로시마에서 국제적인 평화집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1962년 제8회 대회부터 주최 측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분열이 생겼고, 통합을 추진한 시기도 있었으나, 결국 1986년부터는 재분열된 상태로 대회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미래 전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출발 후의 혼란기에 ‘피폭의 성지’로 몰려든 ‘원폭 난민’이 평화공원을 점거해 슬럼화되고, 공원이 있었던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선 모습을 본 사쿠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여기는 어쩌면 지구상에 최초로 건조된 ‘치료탑’이었을지도 몰라. 핵폭발의 거대 에너지에 의해서 말아야. **치료**가 육체의 생명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힘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한..... 인류는 여기서 전(前)세기 중에 영혼을 재생시킬 수 있었을 지도 몰라. 여기에 번갈아가며 한사람씩 들어가서 ‘치료탑’ 효과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정말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고.....(p.150)

‘새로운 지구’에서 ‘치료탑’을 경험하고 육체를 개조하고 돌아온 사쿠가 인류의 첫 핵무기에 의해 파괴된 건물의 상흔인 원폭 돔이야말로 지구 최초의 ‘치료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마지막 두 문장은 육체의 생명력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개조 가능한 ‘치료탑’=원폭 돔의 참된 의미를 전세기의 인류가 깨달았다면 오늘날의 묵시록적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인류의 우행은 ‘새로운 지구’에서도 반복되었다. ‘치료탑’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지구’로 간 사쿠 일행은 ‘치료탑’을 점거하고 있던 불법이주자와의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고, 지구에서 가져간 초소형 원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엠펜레오 고원 일대는 변형되었고, 불법 이주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수 백기 규모였던 ‘치료탑’의 일부도 파괴되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사쿠가 남긴 기록에는 ‘치료탑과 원폭 돔을 중첩시키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진다. 히로시마의 원폭 돔에서 “숭고한 것”과 “불쾌한 것”을 함께 발견한 사쿠는 ‘치료탑’을 우주 저편의 지성체가 “인류를 구제하고 동시에 파괴하는”(p.253) 것으로서 구상해 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후 사쿠는 우주 저편의 지성체가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처치를 받을 결심을 한다. 사쿠와 함께 파견된 의료 담당자가 남긴 글에는 처치에 들어가기 전, ‘반란군’의 지도자 산바르 사령관과 사쿠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산바르는 ‘치료탑’을 우주 저편의 지성체의 에크리튀르, 즉 “기호론적으로 확대된 의미의 에크리튀르”(p.255)로 보고, 저자, 수신자, 지시 대상, 콘텍스트, 코드가 없지만 에크리튀르로서의 ‘치료탑’은 읽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가능성의 근거는 ‘우주공통감각’이다. 뉴런을 수신 능력이 뛰어난 상태로 저편 우주의 메시지에 노출시켜, 저편 우주의 랑그에 잠기는 경험을 한다면, 당장은 우주의 랑그가 가진 콘텍스트와 코드를 해독할 수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지구의 언어로 번역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5일간의 처치 후, 사쿠가 남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자신의 의식은, 여전히 저편의 우주가 전달한 것을 분절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로서 완벽한 ‘충전’이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충전’ 과정에서 극소량 방전된 불꽃같은 것이, 자신의 뇌세포를 스치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편의 우주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구’와 ‘치료탑’에 대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항인 것처럼 확실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탑’은 **악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갈땅의 선인장 열매라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치료탑’의 남용은 인류에게 전달 수 없는 부하를 안겨주었을 터. 소형핵무기의 폭발이라는 비극 없이도, 신이주자의 대부분은 멸망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것을 가속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pp.257-258)

저편 우주의 랑그를 신체의 뉴런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쿠지만, 그 언어의 의미는 해독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갱신하는 힘을 가진 ‘치료탑’이지만, ‘치료탑’ 처치의 남용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때의 ‘치료탑’은 인류에게 있어서의 핵에너지를 이용한 원자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원자력 개발은 ‘악의’나 “사악한 정신”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용 실태는 의학과 산업 분야에서의 핵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의 절멸을 불러오는 무기 개발이라는 대극적인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폭 돔의 메타포가 ‘치료탑’이라고 한다면, ‘치료탑 육성’은 ‘치료탑’이 수 백 기 규모로 건조되어 있는 ‘새로운 지구’만이 아니라, 원폭 돔이 있는 지구 자체를 가리키는 메타포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아마존세계대전’을 일으킨 기쿠치의 선전포고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야말로 지구 종말의 시작이었다는 점과 ‘치료탑’을 원폭 돔으로, ‘치료탑 육성’을 오염되고 황폐화된 지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게 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히로시마’라는 장소이다. 이처럼 우주를 무대로 한 SF소설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장소를 히로시마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치료탑』을 발표하던 시기, 오에는 NHK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세계의 지식인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오에와의 대화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작가 친기스 아이트마토프(Chinghiz Aitmatov)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체험은 인류에 대한 “하나의 신호”¹⁶⁾였다고 말한다. 즉, 인류가 처한 핵 상황을 숙지하고 핵무기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반핵과 핵 폐절로 나아갈 분기점이 히로시마의 경험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핵겨울’ 보고서의 작성자의 한 사람인 칼 세이건(Carl Edward Sagan)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비확장 경쟁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피폭국으로서 핵전쟁과 핵무기 생산에 대해 “도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에 협력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목소리”¹⁷⁾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반핵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도 분열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핵 3원칙을 표방하며 피폭국의 국민감정으로서 핵 폐절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미국의 후방기지로

16) 大江健三郎(1992b)『ヒロシマの「生命の木」』NHK出版, p.48

17) 상계서, pp.146-147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실상에 대해 오에는 “저는 21세기를 향한 일본인의, 세계의 핵 상황을 향한, 새로운 구체적인 태도 표명으로서 ‘핵우산’으로부터의 이탈과 비핵 3원칙의 재확인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법 외에는 “다음 세기를 향한, 일본과 일본인으로서의 자립적인 선택은 없”¹⁸⁾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오에의 핵시대의 ‘근미래 SF’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포로서의 ‘치료탑’은 원폭 돔을, ‘치료탑 흑성’은 핵시대의 지구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세계대전’의 선전포고문과 평화공원 부지를 점거한 피폭난민의 성명문이 환기시키는 것 또한 핵무기에 의한 인류 첫 피폭지인 히로시마였다. 1963년 3월, 구상 단계에 머물렀던 오에의 ‘전쟁 SF’가 히로시마라는 장소와 연결되면서 두 편의 ‘근미래 SF’를 탄생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그해 여름부터 시작되는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히로시마는 오에에게 있어 핵시대의 미래를 사고하는 근원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히로시마는 오에의 SF적 상상력의 출발점이었고, 그 상상력의 근저에는 히로시마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히로시마의 피폭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핵 폐절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에의 상상력은 일본사회의 현실, 즉 반핵운동에 있어서의 정치적 분열과 반핵 의지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태도라는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현실에 변화를 가져오고 핵시대를 구원할 희망을 ‘세계종교’와 ‘새로운 사람’의 등장에 기대하고 있다.

4. ‘세계종교’와 ‘새로운 사람’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세계 각국의 스타십 대선단이 ‘선택받은 자’들만 데리고 지구를 떠난 후, 오염된 지구의 잔류자들은 격심한 혼란기를 맞이했다. 시계루와 같은 인물이 지구 재건운동을 주도해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어감과 동시에 또 하나의 사회풍조로 나타난 것이 ‘세계종교’운동이다. ‘세계종교’운동은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가 각각의 교의와 의식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고블랭식으로 짠 테피스트리(tapestry) 같은 종교라 일컬어졌다. 모든 종교의 단순화된 교의가

18) 大江健三郎(2001)『鎖国してはならない』講談社, pp.154-155

전면에 짜 놓여져 있는 태피스트리를 잘 파악한다면,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거기에 짜여 있다. 게다가 전체가 혼연하게 하나로 서로 녹아있다. 종교가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전에, 인류 전부를 감싸고 있던 전통적인 감정이, 태피스트리의 성격을 이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p.63)

“태피스트리 같은 종교”로 표현되고 있는 ‘세계종교’는 오에의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이 빚어낸 것으로, “종교가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전에, 인류 전부를 감싸고 있던 전통적인 감장”, 인간을 초월한 존재를 향한 기도라는 원초적인 형태로 되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종교’에 대한 발상은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을 발표하기 전인 1987년 10월, 도쿄여자대학에서 행한 오에의 강연 「신앙을 갖지 않는 자의 기도(信仰を持たない者の祈り)」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강연에서 오에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 종교를 갖지 않는 인간, 신앙을 갖지 않는 인간에게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있다. ‘생명의 봄’을 위해 ‘핵겨울’을 거부한다고 하는 바람 혹은 기도는, 물론 기독교 신자가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혹은 이슬람교 신자가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불교 신자가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것을 의식화하고 있다,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에 우리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이 합세해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겨울’을 막고 ‘생명의 봄’이라는 것을 희망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¹⁹⁾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핵겨울’을 막고 “우리들 다음에도 세계가 계속되도록 한다는 것”이 전 지구적인 인류 공통의 염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종교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기 이전의 인류의 “전통적인 감장”에서 출발하는 『치료탑』의 ‘세계종교’와 연결된다. 그런데 시게루의 동료이자 우주선단의 출발에 반대하며 테러를 일으키기도 한 하나와를 통해 ‘세계종교’운동에서의 일본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혼란기에 발생한 ‘세계종교’는 세계적으로 지하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해 갔고, 하나와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지하운동도 그 하부조직의 하나라고 한다. 하나와가 그들의 운동을 ‘세계종교’와 연결시킨 이유는 실패로 끝난 대출발에 대한 책임과 그 이후의 일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는 현재의 지하운동이든 “언젠가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인이 정신적으로 중요한 역할”(p.64)을 다해, 세계적인 종교의 발상지와는 거리가 먼 일본이지만 ‘세계종교’의 짧은 기도문이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분만을 보자면 내셔널리즘적 사고로 오인될 수도 있으나, 하나와의 발언은 핵무기에 의한 인류 첫 피폭국

19) 大江健三郎(1992a)「信仰を持たない者の祈り」『人生の習慣』岩波書店, p.34

일본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이후의 일본의 행보에 대한 책임감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기쿠치와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을 점거한 피폭난민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즉 하나와가 ‘세계종교’에서의 일본인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첫 피폭국으로서의 일본의 역할과 히로시마에서 맹세한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어 내지 않겠다”고 하는 인류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목시록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에 의한 기도문이란 “히로시마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피폭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오에의 의지와도 중첩되는 부분이다. 3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의 반핵운동 상황과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한 오에의 비판이 내재된 것으로 일본인의 국민감정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상투구가 아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신되는 목소리여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종교’운동을 통한 일본과 일본인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함께 소설은 ‘세계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리스크를 통해 ‘새로운 사람’과 이 ‘새로운 사람’보다 더욱 ‘새로운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치료탑』의 말미에서 다카시가 ‘새로운 지구’에서 촬영해 온 ‘치료탑’ 영상을 본 ‘나’의 내면이 아래와 같이 묘사되고 있다.

오히려 그 남자와 같은 방식으로, 나는 깊이 치유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눈물 때문에 텔레비전 화면은 이미 시간을 두고 경련하는 사람들의 명암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거의 정지한 것 같고 침묵하고 있는 화면을 통해, 리듬을 가진 말의 숨결이 전해져 오는 게 아닌가? 나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눈을 귀 삼아, 거기에 무언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리운 사쿠의 숨결이, 뱃속의 아이의 심장소리와 동조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He grows younger every second” 로 시작되는 에이츠의 시행을, 그러나 영어도 아니라면 일본어도 아닌, 어찌면 ‘새로운 지구’에 준비되어 있던, 우주의 말로, 지금은 크기도 불분명하게 가로누운 젊디젊은 사람, 점점 더 젊어지는 사람과 함께 나는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장 새로운 사람보다 더욱 새로운 사람을, 다름 아닌 내가 낳는 것이라고, 그 말은 고해서 알려준다. 이미 누구보다도 새로운 사람은 모친인 나의 기쁨으로서 내 안에 있고, 친근한 심장소리를 전하고 있다..... “He dreams himself his mother’s pride/ All knowledge lost in trace/ Of sweeter ignorance.”(p.137)

에이츠의 「양치기와 산양치기(Shepherd and Goatherd)」를 매개로 표현된 리스크의 내면에는 ‘치료탑’을 경험한 사쿠도 ‘새로운 사람’이지만, 그 궤를 이은 태이는 더 한층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그런 사쿠의 아이를 가진 기쁨과 비장함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

오에의 소설에서 ‘새로운 사람’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적 장애를 가진 장남의 자립을 그린 「새로운 사람이여 눈을 떠라(新しい人よ眼ざめよ)」(『新潮』1983.06)에서이다.

이 작품에서 ‘새로운 사람’은 핵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젊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치료탑』과 『치료탑』에서는 사쿠의 에이즈 해석을 통해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어느 날 사쿠는 에이즈의 시 속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이어(Gyre)’²⁰⁾란 것에서, “개인의 생명의 문제라기보다, 시대 전체 이야기로서, 시간의 되돌림”이란 것을 생각해 왔다고 말한다. 특히 에이즈의 「재림(The Second Coming)」이라는 시를 언급하며 “예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감아온 시간의 코일을 역방향으로 다시 되감을 때”(p.46)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이즈의 ‘가이어’ 해석을 통해 사쿠는 2000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인류의 역사가 멸망에 이르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회전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같이 절멸의 위기에 놓인 핵시대의 인류를 구원할 존재로서, 소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다.

오에는 이 ‘새로운 사람’이란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공중회전』(1999)에서 10년 전 신흥종교단체의 신앙운동이 정치적으로 과격해진 것을 계기로 교의와 교단을 부정하고 기교(棄敎)한 지도자가 다시금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다.

제가 ‘전향’ 후에 계속 생각해 온 것은 성서의 말씀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의미로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종말을 향하고 있을 때, 대립하는 두 개의 것을 하나로 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적의라는 경계 벽을 무너뜨리고, 온통 규제와 계율뿐인 율법을 폐기하는, 그러한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구세주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하는 쌍방을 자신에 있어서 한 사람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평화를 실현하고 십자가를 통해 양자를 하나의 몸으로 하여 신과 화해시키고 십자가에 의해 적의를 없애신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²¹⁾

20) 소설 속에서는 ‘나’가 블레이크의 시집 속의 주석 부분에 그려져 있는 그림, 역방향으로 중첩된 두 개의 원뿔 모양을 한 더블 콘을 보여주자, 사쿠는 더블 콘은 에이즈의 ‘가이어(gyre)’ 혹은 실타래를 도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한쪽은 육체, 한쪽은 영혼, 한쪽이 증대하면 한쪽은 축소되는 관계”(『治療塔』 p.72)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블 콘 혹은 가이어는 “하나의 문명이 2000년을 주기로 생성, 성숙, 소멸한다는 것을 마주 보는 두 개의 중첩된 원뿔이 회전하다가, 즉 하나의 문명이 생성, 발전, 성숙하면서 회전하다가 서로 다른 원뿔에 이르면 새로운 반대의 문명이 태동한다는 원리”(업상용「에이즈의 시에서 「나선계단」의 의미」『한국 에이즈 저널』(62) 2020 한국에이즈학회 p.200)를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의 문명은 반드시 쇠퇴한다는 순환적인 역사관으로 인류의 문명에 대한 에이즈의 사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1) 大江健三郎(1999)『宙返り(下)』講談社, pp.261-262. 영혼의 구제를 위해 모여든 젊은이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낸 3부작 『불타오르는 푸른 나무(燃えあがる緑の木)』(新潮社, 1993.11~1994.08)는 수년간의 창작 노트를 거쳐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한 것은 1991년 후반부터이다. 즉, 3부작의 창작노트를 집필하던 시기는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의 발표 시기와 중첩된다. 또한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 3부작 『불타오르는 푸른 나무』 모두 에이즈의 시에 대한 해석이 작품의

『신약성서』의 바울의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져온 ‘새로운 사람’은 신앙을 갖지 않은 자로서의 오에의 재해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적의를 없애고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 대해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두의 현재와 근미래 세계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대립과 분열이었다.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기류가 감돌았던 1990년대 초두, 오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분열은 통합으로 향할 가능성을 보였으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따른 세계의 재편과 세계 각국의 경제적 편차에 의한 동서대립 구조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핵무기가 폐절되지 않는 한, 세계의 분열과 대립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대립하는 세계에 화해와 평화, 인류의 상생을 안겨줄 존재가 다름 아닌 ‘새로운 사람’인 것이다.

사쿠는 “우주적인 장벽 저편의 지성체”(p.224)가 인류에게 보낸 선물인 ‘치료탑’의 의미와 우주적 지성체의 의지를 파악한 후, 스스로는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고 우주의 먼지로 사라졌다. 이러한 사쿠의 자기희생을 통해 지구로 전송한 메시지는 곧 우주의 의지로, 이 메시지는 타이틀 중심으로 한 ‘우주소년십자군’에게 전달된다. ‘치료탑’을 경험한 자의 피를 잇는 미래 세대로 구성된 ‘우주소년십자군’은 ‘새로운 사람’보다 더 한층 ‘새로운 사람’이다. 『치료탑 흑성』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우주소년십자군’이 위성 타이탄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 코쿤 캡슐에 들어가 처치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이 시각 스타십공사에 반목하는 두 세력이 ‘우주소년십자군’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인체 실험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단체 교섭에 나선 다카시와 하나와가 과격한 학생그룹이 던진 사제 수류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때 ‘나’는 타이가 들어있는 코쿤 캡슐을 바라보며 “최후의 심판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가 세계종교의 가르침과 이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이츠의 시 「채림」을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든 무함마드든 석가든, 다시금 이쪽을 방문해 저편 우주와 이쪽을 매개해주는 ‘그 사람’이,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필요”(p.270)하다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 ‘나’가 고대하는 ‘그 사람’은 곧 ‘새로운 사람’, 즉 미래 세대인 ‘우주소년십자군’이다. 소설에서 사쿠로부터 ‘우주소년십자군’에게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치료탑 흑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소설의 무대는 물론 장르 자체도 전혀 다른 작품들이지만,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핵시대의 인간회복과 영혼의 구제라는 큰 틀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모든 종교가 뒤섞인 형태의 신앙은 『치료탑』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 ‘세계종교’는 고도경제성장을 마감하고 버블이 붕괴한 후의 위기적인 불황의 시기에 생겨난 신흥종교단체를 그린 『공중회전』에 이르러 일본의 신도적인 성격도 포함해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해 있는 싱크리티즘(syncretism)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치료탑』에서 시작되고 있는 ‘세계종교’는 『공중회전』에 이르기까지 작품마다 다소의 변용은 있지만, 묵시록적 세계를 구원할 자로서의 ‘새로운 사람’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말미 부분에서 건축가로 성장한 타이가 재차 슬럼화한 히로시마의 국제평화공원 단지를 원폭 돔과 연결해 재생시키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개 콩쿠르에서 입상한 일화가 소개된다. 원폭 돔 전체를 감싸는 투명한 가람을 구축하고, 건물은 예배당으로 사용한다는 타이의 프로젝트는 사쿠를 통해 전달된 우주의 의지를 실행에 옮길 ‘새로운 사람’으로서, 지구에 마련된 ‘치료탑’으로서의 원폭 돔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대출발 후의 인류사회에 만연한 대립과 갈등을 없애고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줄 것을 암시한다. 이것이 ‘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오래된 사람’으로서의 작가 오에가 핵시대의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하는 희망이며, 핵시대의 일본인에 대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5. 나오며

본고에서는 『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을 중심으로 1963년 히로시마를 방문 취재한 이후부터 핵 폐결 운동에 참여하면서 핵시대의 상상력을 강조해온 오에가 SF라는 장르를 빌어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찰했다.

『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은 핵전쟁과 원전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암과 에이즈의 만연 등으로 지구에서의 생존에 위협을 느낀 21세기 전반의 인류의 행보를 여성의 시점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우주 공간을 무대로 인류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 ‘근미래 SF’로 분류되지만, 소설의 화자가 황폐해진 지구에 남겨진 ‘잔류자’로서 ‘새로운 지구’를 경험하고 온 ‘선택받은 자’와의 사랑과 임신, 출산, 육아 과정을 경험하면서 대출발 이후의 일상을 서술하고 있어 본격적인 하드 SF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에 대한 해석이 소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신앙을 갖지 않는 자’이지만 대립과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인류사회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사람’의 현출을 희망하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이 발표되던 시기,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구소련의 해체는 냉전체제의 와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에가 그려낸 21세기 전반의 인류사회는 동서 양진영의 대립구도 아래 핵무기에 의한 위협과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선택받은 자’가 ‘잔류자’ 위에 군림한 사회로 그려내고 있다. 『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은 이러한 묵시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모색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구’에서 인류의 생명을 갱신하는 힘을 가진 ‘치료탑’을 경험한 사쿠가 ‘치료탑’을 원폭 돔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사쿠의 ‘치료탑’에 대한 인식에는 또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치료탑’은 인류를 창조한 신의 존재가 그의 ‘마지막 작품’인 인류를 위한 선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제하고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치료탑’은 인류에게 있어서의 원자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이 가지는 양면성,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살상의 무기로서의 이용은 “인류를 구제하고 동시에 파괴”하기도 한다는 ‘치료탑’의 양면성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폭 돔을 ‘치료탑’이라고 한다면 ‘치료탑 흑성’은 ‘새로운 지구’뿐 아니라 원폭 돔이 있는 옛 지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이라는 메타포가 공통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히로시마라는 장소이다. 즉,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이라는 근미래 소설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히로시마에 있으며, 우주 저편의 지성체의 의지 혹은 ‘우주의지’로서 전하는 메시지는 피폭을 경험한 국가 일본과 일본인을 향하고 있다. 우주 식민지 개척을 시도한 21세기 전반에도 미국의 전진기지로서 적극 협력하는 일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인류 첫 피폭국으로서 비핵 3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미군기지로의 핵무기 도입을 저지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그리고 평화공원을 불법 점거한 원폭난민의 성명문, 아마존의 신생독립국의 선전포고문, ‘세계종교’에 대한 하나와의 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대외적으로는 반핵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정부가 아닌, 원폭 돔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히로시마의 피폭자들의 입장에서 핵시대의 일본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해독 불가의 상태로 제시되어있으나, 이러한 메시지는 우주 저편의 지성체의 의지를 감지한 ‘새로운 사람’ 사쿠에게서 아들 타이를 비롯한 더욱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역할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타이가 설계한 건축 프로젝트는 슬럼화한 평화공원과 원폭 돔을 재생시키는 플랜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가람을 구축한 건물이 예배당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구상은 히로시마가 ‘세계종교’ 운동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그리고 ‘세계종교’의 리더는 세계의 대립과 반목을 화해와 평화로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세계종교’와 ‘새로운 사람’은 묵시록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타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은 미군의 핵우산 아래 비핵 3원칙과 반핵 의지를 표방하는 일본정부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오에의 비판과 함께 핵시대의 상상력은 히로시마의 피폭에서 출발해야 하며, 핵시대의 묵시록적 상황을 변화시킬 미래세대의 ‘새로운 사람’의 출현을 희구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에서 인류사회의 적의와 대립을 없애고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사람’은 『안녕, 나의 책이여!』(さようなら、私の本よ!) (講談社, 2005.0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용을 거치면서 오에문학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하게 된다.

【참고문헌】

- 송인선(2012)「<치료탑>이라는 예제」『일본문화학보』(52), 한국일본문화학회, pp.247-267
- 엄상용(2020)「에이즈의 시에서 ‘나선계단’의 의미」『한국 에이즈 저널』(62), 한국에이즈학회, p.200
- 榎本正樹(1997)「『治療塔』『治療惑星』—境界線上の文学」『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42(3), 學燈社, p.140, p.143
- 尾崎真理子(2019)「予戒としての近未来SF」『大江健三郎全小説10』講談社, pp.404-417
- 大江健三郎(1962)「ぼく自身のなかの戦争」『厳肅な綱渡り』文藝春秋, p.128, pp.130-13
- _____ (1986)『新しい人よ眼ざめよ』講談社文庫, pp.309-310
- _____ (1992a)『人生の習慣』岩波書店, p.34, p.223
- _____ (1992b)『ヒロシマの「生命の木」』NHK出版, p.48, p.139, pp.146-147
- _____ (1999)『宙返り(下)』講談社, pp.261-262
- _____ (2001)『鎖国してはならない』講談社, pp.154-155
- 大江健三郎/高橋源一郎(1990)「現代文学への通路」『新潮』87(9), 新潮社, pp.125-126, p.129
- 川本三郎(1990)「シェルターから癒しの搭へー大江健三郎の新しい明るさ」『文学界』44(10), 文芸春秋社, pp.170-180
- 川村湊(1992)「今月の文芸書」『文学界』46(3), 文芸春秋社, p.283
- 小谷真理(2008)「解説」『治療惑星』講談社文芸文庫, p.306
- 小林孝吉(1992)「宇宙意志の解説とエコロジー—大江健三郎『治療塔』『治療惑星』」『新日本文学』47(7), 新日本学会, pp.102-111
- 小森陽一(1992)「未来の経験—大江健三郎『治療塔』と『治療惑星』」『文学』3(2), 岩波書店, pp.20-27
- <텍스트>
- 大江健三郎(2019)『大江健三郎全小説 10』講談社, pp.7-274

논문투고일 : 2021년 03월 18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21년 05월 08일
 2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5월 17일

<要旨>

오에 겐자부로의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론

- 핵시대의 상상력의 출발점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회구 -

소명선

본 논문은 오에 겐자부로의 ‘근미래 SF’ 『치료탑』(1990)과 속편 『치료탑 흑성』(1991)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치료탑 흑성’의 의미와 ‘세계종교’와 ‘새로운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오에가 두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에 대해 고찰한다. 소설에서 히로시마의 원폭 돔을 ‘치료탑’으로 인식하는 사쿠를 통해 ‘치료탑 흑성’은 ‘새로운 지구’이자 핵시대를 맞이한 지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때 메타포로서의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이 공통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장소는 히로시마로, 히로시마야말로 오에의 핵시대의 상상력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을 점거한 원폭난민의 성명문, 아마존세계대전 전의 선전포고문, ‘세계종교’에 대한 하나와의 포부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대외적으로는 반핵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정부가 아닌, 원폭 돔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히로시마의 피폭자들의 입장에서 핵시대의 일본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오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세계종교’와 ‘새로운 사람’은 대립과 분열로 점철된 미래세계를 화해와 통합으로 이끌어줄 희망의 메타포로 기능하고 있다. 『치료탑』과 『치료탑 흑성』은 미군의 핵우산 아래 비핵 3원칙과 반핵 의지를 표방하는 일본정부의 모순된 태도와 일본의 반핵운동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 핵시대의 묵시록적 상황을 변화시킬 ‘새로운 사람’의 출현을 회구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Oe Knezaburo's "Chiryou Tou" and "Chiryou Tou Wakusei"

- the starting point for imagination in the nuclear age and the desire for ‘new man’ -

So, Myung-Sun

This paper discusses "Chiryou Tou"(1990) and "Chiryou Tou Wakusei"(1991), which are 'near future science fiction' by Oe Knezaburo.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planet of treatment tower' and 'world religions' and 'new man' that were overlooked in the previous research, I will consider Oe's message that he tried to convey through the two works. Through Saku who recognizes Hiroshima's Atomic Bomb Dome as a 'the tower of treatment' in the novel, the 'the planet of treatment tower' can be interpreted as a 'new earth' as well as an earth facing the nuclear age. The place where 'the tower of treatment' and 'the planet of treatment tower' as metaphors are heading is Hiroshima, and it can be seen that Hiroshima is the fundamental starting point of the imagination of Oe's nuclear age. On the other hand, from the statement of the A-bomb refugees who occupied Hiroshima Peace Park, the declaration of war on the Amazon World War, and Hanawa's aspirations for world religions, it can be read Oe's message that should reaffirm the meaning of the Atomic Bomb Dome, and should seek a way forward through the voices of the A-bomb victims in Hiroshima, rather than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advocates its anti-nuclear intentions externally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And the 'world religions' and the 'new man' are functioning as a metaphor of hope that will lead the conflicting futur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peace. It may be said that "Chiryou Tou" and "Chiryou Tou Wakusei" are works desiring the appearance of the New Man bringing a change in the apocalyptic situation called the nuclear age as hope to the future, with criticism of the contradictory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advocates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nd anti-nuclear intentions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and criticism of the reality of Japan's anti-nuclear movement.